

※ 미사 안내 ※		 <b>동백성마리아성당</b> (우)16999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8로 151 <a href="http://db.casuwon.or.kr">http://db.casuwon.or.kr</a>	주임신부 문상운(알베르토) 총 회 장 이학구(빈첸시오) 연령회장 박희숙(올리엠티) 010-6288-4311 사 무 실 031-286-1175 F A X 031-286-1141
요일	시간		
월 6시 30분	화·목 19시 30분		
수·금 10시	첫 토요일 10시(성모 산심)		
주 일	토요일 19시30분(청년) 11시(교 중) 16시(어린이) 19시(청소년)		



### 본당 설립 18주년 본당의 날 전신개 안마음 계육대의

• 일시 : 10/13(주일) 09:00~16:00 • 장소 : 교구 양지 영성교육원

#### + 미사, 전례, 성사

##### ■ 초등부 주일학교 방학미사

- 일시 : 7월 21일(주일) 16:00 어린이 미사
- ※ 방학기간 중 어린이 미사는 있습니다.

##### ■ 2024년 청소년반 세례식 안내

- 일시 : 7월 21일(주일) 19:00 청소년 미사 중
- 세례성사를 준비하고 있는 청소년들과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 ■ 2024년 첫영성체 일정

- 찰고 : 7월 7일(주일) ~ 7월 21일(주일)
- 첫고해 : 8월 11일(주일) 16시 어린이 미사 전 후
- 첫영성체 예식 : 8월 18일(주일) 11:00 교중미사
- ※ 첫영성체를 준비하고 있는 첫영성체반 어린이들과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 + 교육, 피정, 행사

##### ■ 초/중/고 주일학교 여름신앙캠프 안내

주 일 학 교	일 정	장 소	참가비	QR신청
저 학 년 (유·초1,2학년)	7/27(토)	성당	1만원	
고 학 년 (3,4,5학년)	8/5(월)~7(수) (2박 3일)	계성푸른누리 수련원(가평)	8만원	
중 고 등 부	8/5(월)~7(수) (2박 3일)	계성푸른누리 수련원(가평)	8만원	

- 접 수 : 7/14(주일) 까지  
구글폼 및 초중고 미사 후 접수
- 문 의 : 초등부교감 010-8490-3240  
중고등부교감 010-9261-7244
- 기 타 : 한 가정 세 자녀신청 시 셋째 자녀 무료

#### + 기타 공지

##### ■ 7월 기흥지구 성령기도회

- 일시 및 장소 : 7월 26일(금) 19시20분, 상하성당
- 문 의 : 010-5118-6701

##### ■ 단체 회합 안내

• 꾸리아	월례회의	7월 14일(일)	09:00
• 울뜨레아	월례회의	7월 21일(일)	12:30
• 초등부복사단	월례회의	7월 21일(일)	17:00
• 사목협의회	월례회의	7월 25일(목)	미사후
• 빈첸시오	월례회의	7월 25일(목)	미사후
• 중고등부복사단	월례회의	7월 28일(일)	20:00
• 연령회	월례회의	7월 28일(일)	12:00

##### ■ 교중 미사 전례 및 청소 봉사

전례		청소	
7/14 (일)	5지역(3)	7/13 (토)	1지역
7/21 (일)	6지역(1)	7/20 (토)	2지역

- 지난주 봉사해 주신 교우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 전입 교우

♥ 환영합니다 ♥

성명	현주소	이전 본당
박남식 바오로	동백8로 151	광주/망운

- 전입 교우는 주임 신부님과 면담이 있습니다.

##### ■ 전출 교우

♥ 안녕히 가십시오 ♥

성명	이전 주소	가시는 곳
박소연 비 아	데시앙	수원/동백성요셉
김 윤 마리아달레나	롯데캐슬	수원/청덕

#### '청소년 여름신앙캠프' 간식비 후원

초중고 주일학교 여름신앙캠프에 참여하는  
청소년을 위한 간식비 후원 받습니다.

##### ■ 우리은행 교무금 통장에 입금하신 분 찾습니다.

- 입금내역 : 7월 7일(주일) '여름신앙캠프'로  
납부하신 교우 분께서는 사무실로 연락 주세요.

“가서 내 백성에게 예언하여라.” (아모스 7,15)



## + 우리들의 정성 [7월 1일(월) ~ 7월 7일(주일)]

연중 제14주일	3,967,400원	사제양성후원	1,207,500원	주일미사 참여자수	842명			
교 무 금 7,540,000원	강동민	문용옥	세시리아	신재식	시 문	장보옥	수 산 나	
	강순란	미 카 엘 라	문장용	베 드 로	심상민	안 셸 모	장우석	도 미니 꼬
	강한석	실 바 노	민승기	요 한	오은영	마리아막달레나	전병숙	베 로 니 카
	고건영	마 리 아	박노석	마 리 오	우경일	다 니 엘	전춘자	아 네 스
	고길만	미 카 엘	박삼진	프란치스코	윤희진	릴 리 안	정구철	안 드 레 아
	고현일	안 토 니 오	박상준	안토니오바스	이강훈	임 마 누 엘	정승은	베 로 니 카
	권재경	야 곱	박순임	페 트 라	이경순	데 레 사	정인식	도 비 아
	김규월	가 타 리 나	박정옥	소 피 아	이금희	울 리 아	정찬영	안 젤 라
	김미선	마 리 아	박종수	엘 리 지 오	이병녀	요 셉 피 나	최금분	누 갈 다
	김민진	에 디 타	박희웅	이 나 시 오	이봉남	아 오 스 딩	최명주	아 네 스
	김영준	안 드 레 아	배상열	요 셉	이상림	가 브 리 엘	최민규	
	김윤정	엘 리 사 벳	변영신	베 네 디 도	이수경	마 리 아	최영화	빈 센 트
	김종보	미 카 엘	서영재	모 니 카	이수연	모 니 카	최윤희	엘 리 사 벳
	김종석	시 문	설성춘	요 한	이순애	마 리 아	최은진	마리데레사
	김지연	세 실 리 아	성영석	이 나 시 오	이유미	울 리 안 나	최한욱	마 태 오
	김진태	대건안드레아	손순남	모 니 카	이정란	루 치 아	추정섭	요 셉
	김진홍		손지영	에 스 텔	이중식	다 빋	한상범	다 니 엘
	김학성	도 마	송미선	안 젤 라	이해성	크리스티나	허규현	테 오 도 로
	노명숙	글 라 라	송숙자	안 젤 라	이호빈	야 고 보	황찬성	요 셉
	문경무	프란치스코	송재준	암브로시오	임숙자	스 텔 라		
	문봉숙	보 나	신동은	마 틸 다	임완일	베 드 로		
감 사 헌 금	공일규	이 보	50,000	남상철	데 레 사	50,000	신국선	100,000
성 소 후 원 금	이선희	글 라 라	100,000	이지은	마리스텔라	50,000		
후 원 금 (여름신앙캠프)	김진홍		10,000	박상준	안토니오바스	10,000	손순남	모 니 카 70,000
	김영준	안 드 레 아	50,000	김지은	마 리 아	20,000	김학성	도 마 100,000
	박삼진	프란치스코	100,000	이학구	빈 첸 시 오	50,000	함영택	바 오 로 50,000
	은총반	자 모 회	100,000					
사회복지후원금	김진홍		20,000					
토지·건축헌금	문장용	베 드 로	1,000,000	변영신	베 네 디 도	100,000		

본당 부채 현황(교구 차입금·토지)	금주 토지·건축 봉헌금	본당 부채상환 적립금
1,100,000,000 원	1,100,000 원	57,845,000 원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601-858011 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 (책정자명과 세례명 꼭 기입)	

♡ 봉헌해 주신 신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 간지 교리 (출처: 《성사》, CBCK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 ◆ 교회 안에만 성사가 있나요? 교회 밖에는 성사가 없나요?

성사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에 주신 선물이며 신앙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만 성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하나의 성사로서 자신을 하느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도구로 내어 주시면서, 그 계속되는 임무를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이미 나자렛에서 성장기와 공생활 중에 말씀과 행위로써 구원의 능력을 보여 주셨고, 성령을 통하여 교회에 주어질 것을 예고하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자신에게 주어진 구원 사업을 계속해 나아갈 임무를 받았으며, 세월의 흐름에 따라 자신이 거행하는 전례들 중에 주님이 세우신 온전한 성사가 일곱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사들은 '교회를 통하여', '교회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두 가지 의미에서 '교회'의 성사입니다.

또한 성사는 신앙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에게만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신앙이 없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성사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갈라진 형제들의 교회 안에서는 어떨까요? 동방 정교회는 일곱 성사를 모두 인정합니다. 한국 가톨릭 교회는 성공회의 세례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개신교에서 거행된 세례는 그 유효성이 의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